



## [정규과정] 영상으로 이야기 전달하기 -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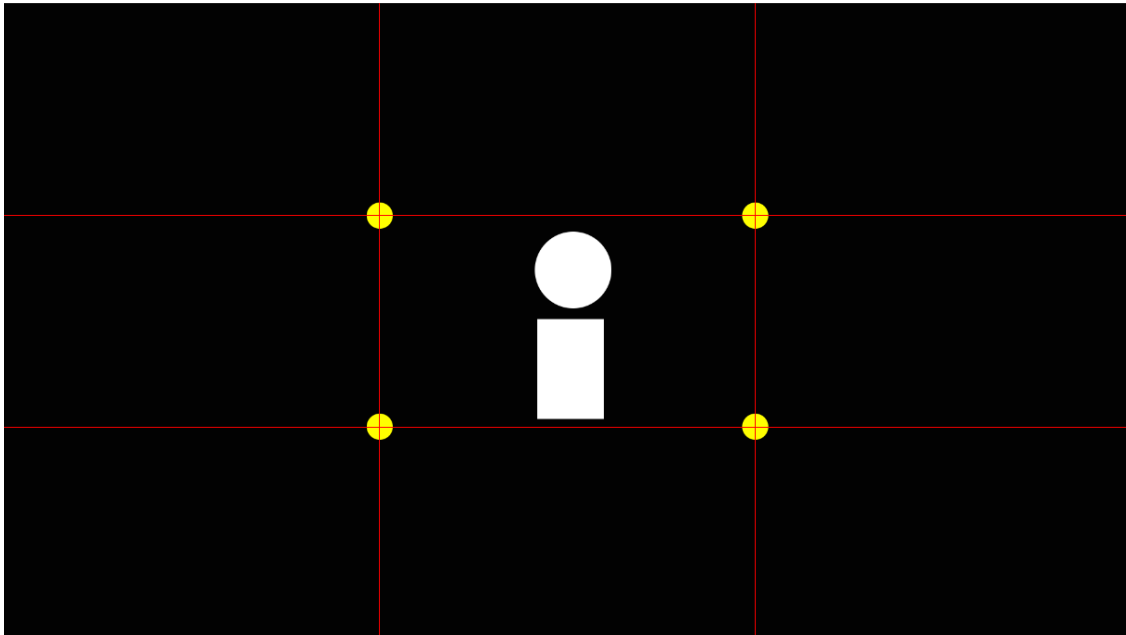
---

주제 : 효과적인 화면 구성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영상을 돋보이게 구성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화면 구성 방법과 카메라의 앵글, 구도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튜터 김미리



## #황금비율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몸을 황금비율로 표현한 그림에서 유래되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사각형의 프레임은 과거 오래전부터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 그림의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즘에는 방송의 화면 비율이 과거 4:3 이었던 것에 반해 16:9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HD가 디지털 영상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16:9의 화면을 가로, 세로 세 등분으로 나누어면 각각 두개의 선들이 서로 만나는 4개의 포인트가 있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피사체를 위치 시키고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황금 비율의 기본이다.

이 황금비율은 가장 기본적인 촬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 #균형

예를 들어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의 주변에 눈에 띄게 밝은 꽃병이나  
어지러운 모양의 그림이 보이게 된다면  
시청자의 시선은 대상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주변의 사물을 적절하게 이동, 배치시킴에 따라서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사물뿐 아니라 색에 있어서도 균형을 신경 써야 한다.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보다 다른 것이 더 밝거나 눈에 띄다면  
의도했던 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진다.  
사람의 눈은 자연스럽게 밝은 부분으로 시선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시선의 변화에 따라 다음 장면을 구성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구도와 앵글

과거부터 많은 그림에 사용되는 구도에는  
평행구도, 사선구도, 원근 구도 등이 있다.

화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구도를 이해한 후 제작하는 영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구도를 잡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렌즈의 선택이다.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렌즈의 선택해야  
화각이 정해지게 된다.

인물이 우선인지,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



앵글 역시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더라도  
앵글에 따라 전달받는 느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렌즈와 인물의 시선을  
같은 선상으로 놓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앵글이 낮아지게 되면 인물이 거만하게 보이거나  
악당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반대로 위에서 내려다 보는 하이앵글의 경우  
자칫하면 웅졸하고 불쌍해 보이는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앵글이 주는 다양한 기능을 익혀서  
효과적인 연출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화면의 이동과 여백

화면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항상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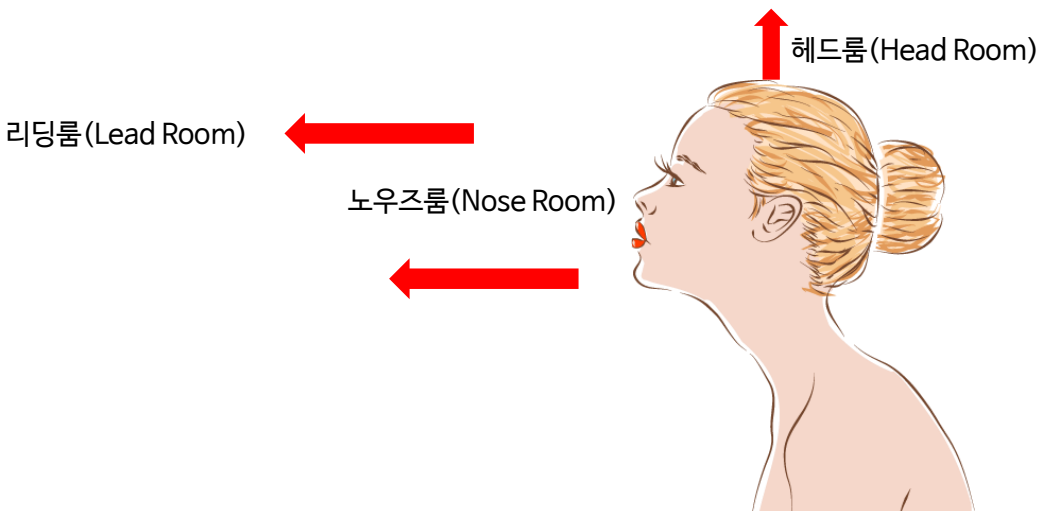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 카메라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연출하려는 의도에 따라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물 촬영의 경우 황금비율에 맞추어 인물을 배치하고  
머리 위쪽에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을 ‘헤드룸(Head Room)’이라고 한다.  
이 여유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인물이 옆을 보고 있을 경우에는  
인물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여유 있는 공간이 확보 되지 않으면  
벽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눈과 코 방향에 여백을 두는 것이 좋은데,  
이를 노우즈룸(Nose Room)이라고 한다.

리딩룸이란, 인물의 진행방향이냐 피사체의 진행방향에 대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시청자의 시선 역시 자연스럽게 화면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배경화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배경화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경화면 자체가 어떠한 복선이나 의미를 주는 미장센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시청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

배경을 설정 할 때는 어느 정도 연출도 필요하다.

인터뷰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배경을 설정한다든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배경을 함께 보여주는 등의 연출을 할 수 있다.

